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l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춘천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인합일치운동
새로운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 행 인 : 장효근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30호 2009년 9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 가득한 9월

다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INDEX

2 복음으로 일방을 섬겨라 (한인 디아스포라)
4·5 아름다운 이성, 4인이 일어가는 세상보기
6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하니교회)
10 신중인플루엔자를 대비하자 (II)

11 믿음의자녀는 하나님께서주신선물

13 노잉 (Knowing)

복음으로 열방을 섬겨라!

한인 디아스포라의 비전



글/ 김 종 호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선교위원장, 효자감리교회)



'Diaspora'란 말은 유태인으로서 본국에 살지 못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Diaspora란 말은 2단어가 합하여져 이루어진 합성어(合成語)이다. Dia란 말과 Spora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Dia는 '흩어진' 이란 뜻의 말이고 Spora는 '씨앗' 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들 두 단어가 합하여져 '흩어 뿌린 씨앗' 이란 뜻을 지닌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외국 땅에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를 손꼽는다면 BC 586년 바벨론제국 군대에 의해 멸망당한 이래 고국 땅에서 쫓겨나 이국땅을 떠돌아야 했던 유대인들을 들 수 있다.

지금 유태인들의 전체 숫자가 1,500만 가량인데 그 중 겨우 500여만이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1,000만 여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 비극이 지금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본국 이스라엘을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들의 도움에 힘입어 아랍 여러 나라들과 맞서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일천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 무려 600만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간에 힘을 쌓아 미국이란 큰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미국이 아랍 여러 나라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미국 내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미국 땅에서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듣기로는 미국 안의 어떤 정치가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문제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도 이제 700만에 이른다. 우리 디아스포라들도 자신들이 있는 나라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미 이런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도산 안창호, 애국지사 김구, 서재필 등 무수한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의 놀라운 변화의 장본인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前 MIT 기계공학과 학과장, 前 美국립과학재단 부총재(공학담당)로서 한인 디아스포라 출신이다. 이외에도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다.



성경에서도 요셉이나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울도 모두 디아스포라 출신이다.

성경의 백성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의 운명을 감수하며 역사를 살아왔다. 사도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자기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센터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핍박을 받으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전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역사의 비극을 감수하는 흩어진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흩어지며 사상과 문화의 씨를 당시 헬라세계에 뿌리는 세계 속의 민족으로 살아온 것이다.

흩어짐 자체는 슬픈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역사를 반전하는 새 시대의 이야기가 잉태되고 있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으로 흩어져 갔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글자의 의미처럼 '씨뿌림' (spora, sperm)의 섭리의 역사였던 것이다.

한국인 디아스포라도 이제는 700만에 달한다고 한다. AD 690년 신라시대 장보고가 서해상의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당시 당나라에 이미 신라인 사회인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현대 이민의 역사는 1903년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한 100여명의 하와이 이민이다. 고종 황제 구한말 시대 소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로의 취업 이민과 함께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시대의 막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세계 175개국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미국에 250만, 중국에 280만을 위시하여 글로벌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다.

우리나라는 1,000명당 1개의 교회가 있으며 미국 LA는 700명당 1개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남북한 합한 한민족 인구 7500만 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750만 명이라면, 인구의 1/10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민족 전체 숫자 대비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다(이스라엘 민족은 본토 650만 명 1,000만 명 디아스포라다).

최근 우리교회에서 세계의 수도인 뉴욕 필그림교회의 한인청년학생 29명의 선교팀과 함께 ccf연합으로 8. 3일(월)부터 6일(목)까지 'AWANA영어캠프'를 진행하였다. 한인디아스포라의 선교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글로벌시대에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교회의 세계선교도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아동 창의미술교육 무료강습회

가. 일 시 : 2009년 9월 5일(토) 오전 10시
나. 장 소 : 춘천 와이신협 세미나실(운교동파출소 건너편)
다. 주 제 : 유아동 창의미술교육(순수회화)
라. 강 사 : 이 관 형(유치원 원장/서양화가)
한국교원대학교종합연수원/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
마. 대 상 : 현직 교육(보육)기관교사 및 예비교사
바. 인 원 : 25명(artpam@hanmail.net 선착순 접수)
(메일로 지역/소속/이름/직책/연락처(핸드폰) 필히 기재)

주 최 (사)아트팜 미술교육원 / 후 원 춘천와이신협 · 누보 · 스프링 팜스
※ 본 강습회는 지역 교육인을 위한 무료강습회입니다.

SGAC
2009 Seoul G-Art Collection

박수근 그 後에....
2009. 9. 15 ~ 9. 21 / 서울미술관
서울 인사동에서 400평 규모로 펼쳐지는 강원도 연고 중견, 신진작가들의 첫 서울 아트 페어전!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주최, 주관 LAW&S
운영위원장 이 관 형

한인 디아스포라, 모국 교회를 섬기다!

미국 필그림 한인교회 청년들의 아름다운 섬김

곽 성 찬 목사(춘천광염교회)



지난달 8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춘천 효자감리교회에서는 400명 정도의 어린이들과 선생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 번씩 물어 본다.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어느 하나 찡그림 없이 밝은 표정의 어린이들과 장난기 많은 선생님들이 어우러져 함께 웃고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행복 가득하기 그지없다. 이곳에서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교회에서 온 29명의 한인2세 청년들과 춘천CCF 회원교회 50여명의 대다수 청년 교사들이 연합으로 주관하는 'AWANA(어와나) 영어 성경 캠프'가 4일간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2009년 5월 전 세계적으로 춘천이 성시화를 최초로 시작한 도시로서 주목을 받으며, 미국휴스턴변혁대회에 초청을 받아 기독교연합회를 대표하여 상임총무 김성호 목사와 총괄분과장 박인관 목사(CCF회장),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목사, 평화성결교회 염윤호 목사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춘천이 어떻게 성시화가 되었는가하는 과정과 성시화 모델로서의 현재모습과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이 춘천을 보는 새로운 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보고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김성호 목사와의 친분이 있던 필그림교회 수석장로의 초청을 받아 필그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담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와나 영어성경캠프'의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필그림교회는 매년 청년들이 선교 비전트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필그림교회 청년들이 자신들의 모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달란트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소원하며 가장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상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영어를 모국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쉽게 진행되어지지는 않는 가보다.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상의 문제로 한국교사들과 필그림교회 청년들과의 사전 만남 없이 시작하여서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에다가 함께 기도한 적도 없는지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캠프에 모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나보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은 친히 일하고 계셨다. 우리에게 있어 서로의 소통의 벽, 문화의 차이는 예수님 이름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힘을 내었다. 바로 혼탁하고 어지럽고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 구원! 300여명 가량의 6-13세까지의 어린이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심정으로 시로를 배려하고 기쁨과 감사로 성경캠프에 임하게 되었다.

어와나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린이 사역에 열정으로 1950년대에 태동한 어와나는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발전되어진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 기관으로서 세계 114개국과 미국 내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와나를 통해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에도 198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어와나 사역의 5가지 사역의 원리가 있는데 **①복음중심 ②성경암송 ③재미있게 ④지도자를 양성 ⑤지도자훈련**으로 사역의 원리가 구성되어 있다.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어와나는 교회교육의 완성도가 무척이나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신나는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듣는 시간, 또한 형제자매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교제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어와나의 장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어와나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미국 필그림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영어 학습과 함께 이루어진 이번 성경학교는 연합과 영적 회복, 그리고 도전과 비전 모두가 어우러진 성공적 캠프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캠프가 마쳐질 무렵 수많은 아이들의 눈가에 맺혀진 아쉬움의 눈물을 발견하게 된다. 미국선생님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현지 선생님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아이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나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준 계기가 되었다.



미국 필그림교회 청년들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스리랑카 (Sri Lanka)

- 인구 : (2008년) 19,394,000
- 수도 : 콜롬보(Colombo)
- 민족 : 신할라족 74.6%, 타밀인 17%, 무어족 7.6%, 버거인(혼혈인) 0.4%, 기타 0.4%.
- 언어 : 싱할라어(스리랑카어) · 타밀어
- 종교 : 불교 71%, 힌두교 12%, 이슬람교 8%, 기독교 7.62%.

〈최근 소식(Recent News)〉

종족간의 긴장은 과거 25년간 동북에 있는 대다수 신할라족과 타밀족 소수 민족 사이 전쟁이 일어났다. 200,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치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FOCUS(학생을 위한 스리랑카에 있는 기독교 조직)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의 희소식을 나누기 위해 일하고 있다. 몇몇의 학생과 FOCUS의 졸업생들은 적극적으로 원조를 조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내전의 희생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탱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편집위원 Dr. S. Jonathan Nimal]













미국 필그림교회 청년들





아름다운 여성 4인이 열어가는 세상보기

참여자: 이향아(강원대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이주영(춘천여성홀리클럽회장), 정양혜(춘천시의원), 정현숙(YWCA춘천청소년문화의집관장)

21세기를 흔히 '여성의 세기'라 한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를 지적하라면 '여성지도자'들의 괄목할만한 활약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여성이 거론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여성이 올라가도 되느냐 아니냐 하고 성별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이다. 그만큼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지도자(제자)들이 나온다. 미리암은 최초로 등장하는 여선지자로서 지도자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선지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쓰임을 받았으며, 다비다(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많은 일을 감당하였던 여제자였고, 브리스길라는 사도바울을 도와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일생을 드려 헌신했던 제자였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탁월한 감성적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성 제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펼치셨다. 정답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나라를 열어나가는 여성 4인. 그들이 꿈꾸며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 이주영 회장(춘천여성홀리클럽)

여성홀리클럽은 작년 12월,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효근 목사님과 홀리클럽회장 이학규 장로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17명이 모여 발족하였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나 가정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다. 한국 교회나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느 날 철야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내 신앙을 깨닫게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하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할수록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한 일임을 깊이 알게 되었다. 여성홀리클럽은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

✲ 정현숙 관장(YWCA 춘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은 춘천시에서 설립하고 춘천YWCA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2001년 4월에 개관하였다.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맡게 되어 배운다는 마음으로 감당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화의 사역 주된 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은 여가시간이 없다. 진학을 위한 입시공부가 주된 관심사이고,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학기 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청소년 문화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후원이 없으면 청소년 문화사역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문화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교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 아동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되기를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 이향아 소장(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

2006년도에 춘천으로 오자마자 "강원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섬기게 되었다. ONE-STOP지원센터는 2006년 2월에 전국에서 5번째로 강원대학교 병원 내에 개소하여 여성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무료로 상담·의료·수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지원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진찰하면서 이 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깨닫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는 여성부의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이다. 지난 5월 여성부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해 개소했는데, 아동·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예방 교육 및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와 정상적 발달·적응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피해아동과 지적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소되었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정양혜 의원(춘천시의회)

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2006년 5월, 시의회 7대 선거에서 여성의원이 처음으로 4명이 선출되었다. 현재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문제이다. 이 문제는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신용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든든한 길잡이
농협자산관리(주)강원지사
지사장 홍 세 표 장로
(춘천신성감리교회)
H.P. 010-5373-2877

결혼 예복 여성정장 캐쥬얼
춘천 SI
대표 지 경 선 집사(갈릴리감리교회)
033)256-8448, 010-2885-4771



진행자: 정재호 사진: 김미경



정현숙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청소년들이 되게 해야



정양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또한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춘천지역에 230여명의 새터민이 입주해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새터민들의 자녀교육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도들과 교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과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면.

✲ 정양혜 의원

여성의 한사람으로 양성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회 내에서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집행되는 관련분야와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복지문제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될 때가 많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향아 소장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는 개소한지 얼마 안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 아동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으면 한다. 피해아동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다 보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 대부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여 부모들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기구들을 기증해 주셨다. 저와 우리 직원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 정현숙 관장

청소년문화의집을 섬기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며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싶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키우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청소년들이 되게 하고 싶다. 결국 청소년문제의 핵심은 부모교육에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중이다.

앞으로 20-30년 후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가 된다.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를 그려보며 준비된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는 소통이 되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 가정과 학교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열심히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 가정과 학교가 소통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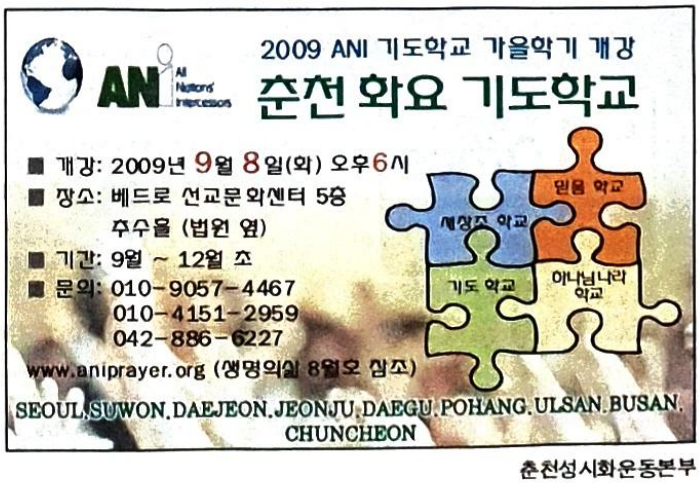
✲ 이주영 회장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원인이다. 정치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치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운명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꾸준히 부흥하고 성장해 왔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영향력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곳곳에서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복음은 세계를 향해 전파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욱 안정되고 경제적 성장이 꾸준히 진행될 때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여성홀리클럽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교회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고, 많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다.

◆ 스몰그룹리더훈련학교(Small group Leader Training Course)
일시 : 10월 19~11월 10일(매주 월~화 저녁7:30~10:30)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목사)
주최 : Young2080 주관 : 춘천기독청년포럼 (문의 : 엄기홍목사 011-366-784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하나교회는 김길홍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1996년 춘천 후평동에 창립되어 10여 년 동안 상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온천히 동분서주한 아름다운 교회이다. 김 목사는 '백의의 천사', '말씀의 천사', '로뭄 받은 목사로 유명하다. 일찍이 주요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그 헌신적 사역은 정평이 나있다. 성도들의 헌신과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작은 친국의 예표가 되고 있는 하나교회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하나교회」(김길홍 목사)편입니다



김길홍 목사

춘천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낸 김 목사는 원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김 목사의 청년시절은 나이팅게일의 삶과도 유사했다. 춘천대학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청년 김길홍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보이지 않는 부르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부르시는 음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기독교재단인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1980년 1월 1일, 비몽사몽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재림의 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과 삶속에 전인격적으로 모셔 들이게 되었다고 김 목사는 회고한다. 김 목사가 회심한 다음에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게 된다. 사역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1983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 시취를 받은 이후에는 소망침례교회와 성산순복음교회를 거쳐 1996년 뜻있는 몇몇 동역자들과 지금의 하나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상담과 치유사역



하나교회는 말 그대로 몸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이다. 김 목사의 사역은 개척 초기부터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회복을 기도해주는 사역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 적지 않다. 상담과 집회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일어남은 물론이고, 여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직접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1초전이라도 역사할 수 있음을 수시로 배운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이러한 상담과 기도를 통해 이혼까지 이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몸과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관계전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 등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일상적이게 되었다. 김 목사는 늘 성도들에게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강조점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축복을 받기위해서만 주님을 믿으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쉽지만, 먼저 주님을 구하고 영혼이 잘되기를 구하면 반드시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뒤따라온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교회는 십일조만이 아니라 십(10)에 삼(3)조를 드리며 헌신하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한다. 봉사도 내가 먼저, 헌신도 내가 먼저라는 슬로우건이 하나교회의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된 일군들이 모여 있는 하나교회의 모습을 보고 방문하셨던 외부 강사들, 목사님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복음전파 사역

하나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강조한다.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란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 정신과 선교정신, 전도정신을 말한다. 하나교회는 1996년 개척초기부터 선교와 전도에 힘썼다. 예배 후에는 전 성도가 전도지를 배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심지어 금요일 밤 철야기도회가 끝난 늦은 시각에도 어김없이 강원대학교 인근 지역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있다. 이 사역도 초교파적이다. 교회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전도지를 사용하기에 하나교회가 소개되어지기보다 하나님과 복음만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교회의 선교적 특징 중의 하나는 여름마다 전 교우들이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등을 방문하여 복음전도와 함께 찬양, 드라마 등을 선보였다.

8월 첫 주에 이루어지는 선교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상한 몸이 치유되며, 연계된 현지교회는 배가 되는 놀라운 부흥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한다.

김 목사는 현재 독신이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며 사도바울의 독신 권면이 마음에 와 닿았고, 주님께서 친히 환상을 통해 세마포 입은 신랑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김 목사는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독신 목회를 통해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세계를 다 다니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메여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었노라고 김 목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김 목사는 현재 방송사역, 청소년 사역, 상담사역 등 여러 사역으로 밤낮이 없다. 외부의 요청이 많아 하나교회만 돌볼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본 교회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고 고백한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 춘천 성시화, 북한 선교, 세계선교사역에 꿈이 있는 하나교회는 「세계선교센타」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 자신의 젊음을 모두 드린 김길홍 목사, 그리고 그의 평생 동역자인 김사라 간사(복음성가 가수),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인 하나교회에 주님이 대로(大路)를 열어주시기 기도한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 영혼의 양식

다른 생각

(마태복음 16:21~23)



전석규 목사
(벧엘성결교회)

둘째가 네 살 때, 하루는 밥을 먹다가 "아빠, 아빠! '무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안다요"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순간 나는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그, 그래. 뭐라고 할까?" 물었다. "무우가 영어로... 깍두기죠?".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심각하게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21절), 베드로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들도 성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야를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한 친구가 농담처럼 "나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라고 애기한 적이 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눅6:20)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토록 부러워하고 있는 부자들처럼 되기 위해 간구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마20:28)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 한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가'를 자랑하고 있다.

제일은 믿음이 아니다

제일은 사랑이다(고전13:13).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사랑은 그것의 완성인 것이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전에 나는 기존 목회에 한계를 느끼고 참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무엇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일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그 후 나는 작은 자들을 위한 복지목회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13:34).

주님과 다른 생각을 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앞을 막아섰다(23절).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충격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바로 앞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18절)라는 말씀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할 그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회개하고 세상과는 다른, 그러나 주님과는 같은 생각을 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사색의 창

아름다운 용서



박상운 장로
(봉내호스피스 사무국장)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정적 가운데 그를 몹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턴(Edwin Stanton)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아주 강직할 뿐만 아니라 독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대놓고 아주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한 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얼굴입니까? 저는 고릴라를 잡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링컨의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고릴라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링컨을 고릴라 사람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행정부를 조직하면서 놀랍게도 자기를 그토록 비난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비난했던 그의 모든 잘못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고, 그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국방장관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과연 스탠턴은 링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뒤에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슬퍼하며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인류역사상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정가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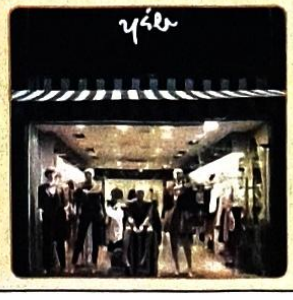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용서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합니까? 화목하지 못합니까? 용서에 인색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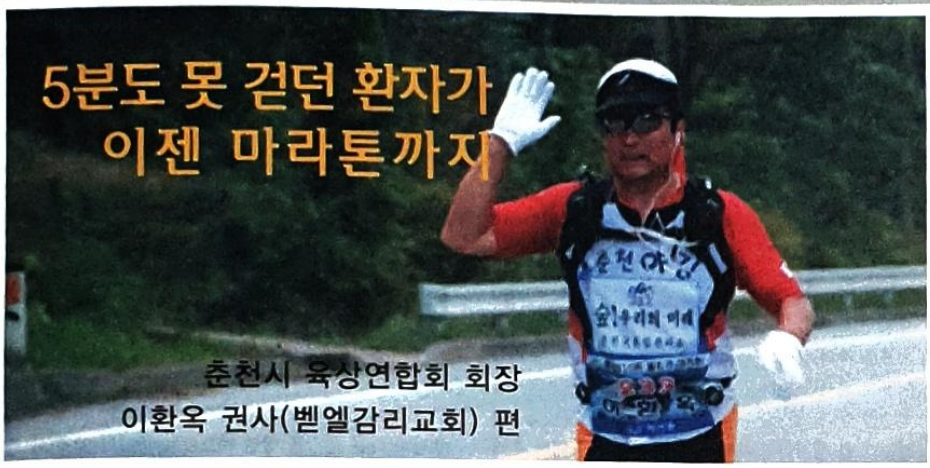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오네시모가 있다면 깨끗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 (기사투고) T 256-1260~1 F. 033) 257-1260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레모네이드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은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신앙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한 신앙적 경험은 믿음을 갖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분명한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한다. 벧엘교회 이환옥 권사(춘천시 육상연합회 회장)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

이 권사는 원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보다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와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권사의 집안은 산신을 믿고 장안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다. 장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는 문제도 교회 다니는데 커다란 장애였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나이에 버거씨 병에 걸려서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괴로워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살았다. 버거씨 병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발이 차갑고 아프고,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병이다.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전혀 병세가 호전이 되지 않았다. 이왕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되는대로 살자! 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교회와는 담을 쌓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새로운 시작

처음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내였다. 아내도 3차 신경통이 와서 원주, 서울로 병원을 다니면서 MRI를 찍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1997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 권사는 교회를 다니려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설득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손을 덜덜덜 떠는 이웃에 사는 사람(심지어 정신병원까지 가려고 했던)이 교회를 다니면서 낫게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계속 설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 남편인 내가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는데 마음이나 편하게 교회 다니게 하자! 그렇게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갖게 되었다.

특별한 경험들



아내가 1년 정도 교회를 다닐 때쯤이었다. 1998년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자기가 생활하는 곳을 소개시켜 준다고 데리고 갔다. 그런데 만신전이 아닌가! 신을 받은 사람이었다. 순간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정신이 번뜩 났다. "술 좀 달라" 말하고 가져온 술을 대접으로 들이켰다. 그리고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여기 오면 안 됩니다"는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버렸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친구들과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자 술이나 먹자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열쇠꾸러미를 술집에 맡겨 놓는데, 이날도 열쇠를 맡기고 택시를 타고 집 앞 골목에서 내렸다. 이때 늦은 밤 아내가 사거리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당시 작은 형님이 암으로 누워있어서 아내가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 "작은 형님 간호하다가 이제 오는구나! 나는 이 늦은 시간까지 술주정인데..."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조금씩 걸어가는데 아내가 뒤따라왔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집안에서 아내가 자신을 맞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 방금 키로 문을 열어준 것은 누구란 말인가? (아내는 병간호 후 저녁에 들어와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한다. 기이한 일이다.)

성령 체험

연속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다.

"교회는 부부가 다니는 사람이 없어? 나더러 교회 다니자는 말을 안 해?" 아내는 혹시,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하면 자신까지도 교회 가는 것을 막을까봐 말하지 못했단다.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다닐게..." (할렐루야!)

1999년 1월 13일 교회에 처음 나갔다. 그리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서 부흥회가 열렸다. 부흥회 때는 맨 앞자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권사님들이 말해주었다. 하지만 앞자리는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욕심이 나서 맨 앞에 가서 앉았다. 부흥회 중에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픈 다리가 찌릿찌릿했다. 설마 했다. 그동안은 다리가 아파서 가까운 거리도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먼 거리의 집까지 걸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다리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치료하신 것이다.

변화된 인생



성령체험을 하고 2002년도에 마라톤에 가입을 해서 뛰기 시작했다. 버거씨 병에 걸린 사람이 마라톤을 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라톤을 완주하고 기념 메달을 집에 걸어놓았다. 그러나 메달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5분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주 후 찍은 사진을 걸어놓았더니 그제서야 믿었다고 한다.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국민 생활체육 춘천시 육상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환옥 권사는 언제나 달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한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처럼 된다. 5분도 못 걷는 사람이 마라톤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 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그의 간증이고 고백이다.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장손 집안으로서 드렸던 모든 제사를 파하고 추도예배를 드린다. 친인척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이 권사의 결단과 기도가 통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신다. 이환옥 권사가 술과 담배를 끊고 온전한 믿음생활을 한 지 이제 8년. 앞으로 그는 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청소년 복음화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의 걸음

예스컴(YES COME), 학원 복음화!

예스컴(대표 길선희 간사)은 청소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1996년 2월 16일 춘천에서 창립된 청소년 선교단체이다. 예스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복음전파를 청소년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통한 학원복음화와 가정을 복음화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청소년들을 미래의 주역으로써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 복음화를 위하여 예스컴은 구체적으로 6개의 사역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학원복음화 사역은 예스컴의 6대 사역 가운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역이다.

춘천에는 27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는 그 중 16개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중학교 : 남춘천여중(브니엘), 대룡중(예레미야), 봉의여중(헵시바), 우석여중(코람데오), 유봉여중(엘르욘), 춘천여중(에브라임), 춘천중(에벤에셀), 후평중(익뒤스)
* 고등학교 : 강원고(생명의소리), 강원사대부고(로뎀), 봉의고(한울), 성수고(로베스), 유봉여고(나실인), 춘천고(엘리사), 춘천실고(작은밀알), 춘천여고(엘리에셀)

각 기독동아리의 주된 활동은 예배와 기도모임, 그리고 전도이다.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지내게 되며, 학교에서 또래집단에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인격, 인생관, 종교관, 가치관 등이 형성되어져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가는 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시기에 많은 시간을 머물러 배우고 익히는 학교라는 곳은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스컴은 간사와 헬퍼를 각 학교에 파송하여 기독동아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모임이 활발한 학교의 경우 예배 외에 따로 중보기도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큐티 모임 등 다양한 시간들을 갖고 있다. 기독동아리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내 전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우들을 축복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명 '교문찬양', 또 학교 축제에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복음을 전하며,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예쁘게 포장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스승의 날을 통해 교내 모든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리는 것 등을 하고 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각자 학교별로 활동하는 것 뿐 아니라 예스컴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활동도 하고 있다. 매해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학교 임원들이 모여 연합임원 수련회를 가지며 여기에서 선출된 연합임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연합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4월에는 학원복음화대회 'APPOINT'를 통해 기독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학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청소년 찬양집회 '예스컴 프레이즈'를 열어 모든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도 갖고 있다. 그리고 연 1회 개최되는 춘천 중고교 연합 체육대회 때는 종합운동장 입구에 서서 동아리 연합 노방전도를 한다. 각 기독교 동아리들은 이런 연합 활동을 통해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하며 학원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지막 부흥의 세대로, 이 시대의 희망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컴은 학원복음화 사역을 통해 이들을 양육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주님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연락처 : 244-5400, 예스컴 클럽]

글. 함지혜 간사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신미 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실장이(스텝) (서울동부13기수료)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장승원 / 기도 / 종이위에 콜라주 / 24 × 18cm / 1998

〈작품설명〉

이 작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실존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구겨지고 뒤틀린 모습, 부정하고 싶으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감상에 따르는 고통은 기도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는 값진 체험입니다. 기도에 대한 한 작가의 영성이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품을 내보일 수 있는 작가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과 작업의 여정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편집위원 이 관형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자!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나의 삶이
부딪치고 찢기도
상처가 나도
늘 감싸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그대의 영혼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짓눌려 있어도
늘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그대와 나의 세상살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늘 회복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사는 이 땅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 시. 김 장 기 (춘천한길교회 권사)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21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 H1N1)를 대비하자(II)



고석연
(가정의학과)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600만 명분 밖에 확보 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 전체 인구의 25% 이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집단 면역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백신의 숫자는 최소한 700만 명분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미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종인플루엔자란 병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것이다. 그래야만 최대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어서 생긴 병을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 바이러스성 질환은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독감(influenza)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 deficiency virus, HIV)에 의한 에이즈(acquired immunodificiency syndrome, AIDS)가 있다. 바이러스성 질환은 에이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확실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키거나 질병의 정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제가 존재할 뿐이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독감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미플루는 완벽한 의미의 치료제가 아니다. 단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일뿐이다. 타미플루를 먹으면 하루나 이틀정도 병에서 빨리 회복되지만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증상완화이다. 어차피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증식한 이후에 몸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7일정도 후면 병이 자연적으로 낫게 된다. 그러나 병을 앓고 있을 때는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리고, 몸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휴식과 충분한 수분섭취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 걸렸을 때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명단을 발표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이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외됐다고 한다. 중환자가 많기 때문에 거점병원지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중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거점병원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가 아니라면 거점병원에서 진료 받고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대신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대증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지도 모른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대증치료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불필요한 기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건강해 보이는 젊은 청년이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러 왔다. 약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왔다고 했다. 청년을 진료하는 동안 마음이 답답했다. 타미플루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나마도 중환자를 위해 아껴야 할 것이다. 모자란 백신 또한 노약자와 중환자들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때다. 물론 우리는 대증치료를 통해 주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다.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출산율(출산율은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 1.0 붕괴'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경제난으로 결혼이 줄고 임신을 꺼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 정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이 힘을 합쳐 저출산 위기를 넘기 위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강원도운동본부'가 세워지기도 했다.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특유의 은사가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하고 한 사람은 저러하니라.**"(고전7:7)고 말씀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속한 하늘시민들이다. 천국백성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 시민의 일원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음전파의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위대한 출산명령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7-28).

왜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주택을 비롯한 보육과 양육,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나친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려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경계하셨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1-33)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절대적 주관자가 되신다. 태를 닫기도 하시고(삼상1:5)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며(창25:21)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수태하는 힘을 주어 출산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히11:11-12).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한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의 상속자인 다음세대의 주인공들을 출산하는 것이다(창22:17; 시127:5; 고전 7:14).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12:2)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시126:5-6; 128:3,6).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다(요셉과 다니엘이 이집트를 바벨로니아를 구원하듯).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개개인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출산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나라가 완성되는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해야 한다.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항

발작적 기도

성도들의 기도스타일 중에 "규칙적 기도습관"이 있고, 소위 "발작적 기도습관"이 있다. 발작적 기도습관이란 평소엔 기도하지 않던 분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평소 새벽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가슴이 덜컥 한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시련을 주셔야만 한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말이다. 발작적 기도습관을 고치자.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자!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춘천장로교연합회 명패 붙이기 운동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합시다!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춘천지역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장로교회원교회의 명패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교단 및 교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010-2061-2161(장로교연합회 총무 김원중목사)

* 춘천장로교연합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형제콘크리트

KS 인증업체

◈ 콘크리트 벽돌, 블록
◈ 인터록킹(소형고압블록) 시공전문
◈ 호안블록 (게다, I형)
◈ 모래, 골재, 인방

☎(代)254-9656
017-371-7737
후평1동 동면 진입로 입구

대표 김 종 찬 (효자감리교회 권사)

사랑, 희망, 나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 주는 강원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부모는 네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없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수가 없는 것이다.
그 기쁨은 물론
그가 찾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이 바란 대로
건강하고 멀쩡하게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몸이나 정신이 아니면 둘 다 부족하고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더라도
이 아이는 그래도 당신의 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게도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삶의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서
부모가 그 행복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
이 아이는 당신 자신과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다.
아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 아이의 삶을
완성해주는 데에서
틀림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다.

필벅의 「자라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회장 고순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간의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가족해체 예방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자녀양육 및 부모들의 사회활동 권장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1일에 설립되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부모, 형제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제, 자매, 부모 및 다른 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생활 권장과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모든 장애 영역 및 생애주기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들의 힘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주요사업

장애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가족지원 사업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가족 에로상담, 장애인부모대화 운영, 장애인식 프로그램운영, 후견인봉사단 구성 · 운영, 직업상담, 기타 장애인가족지원관련 사업 등

- ◆ 장애인가족쉼터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추진 및 운영사업
- ◆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사업
- ◆ 저소득, 결손가정, 빈곤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학 및 후원사업
-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장애인체험프로그램)
- ◆ 장애인복지를 위한 교류 및 친선도모사업
- ◆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 장애인의 치료, 재활, 보육, 교육, 직업, 주거와 관련된 장애복지 환경개선사업
-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 ◆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립 추진사업
- ◆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 유공자 발굴 표창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부합되는 수익사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은 나눔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을 전해주실 후원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

200-080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TEL. 033)244-0641, 070-7743-0641
FAX. 033)244-0642 www.gwbumo.com
농협(301026-51-060700), 신협(04073-12-012301)
예금주: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

※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 다문화연극축제와 함께하는
제2회 신나는 나눔 장터

결혼이주여성들이 연극을 통해 자아의식을 찾아가고 상호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행사로 다문화 가정과 소통을 위한 '2009 다문화연극축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신나는 나눔 장터'가 9월 12일 국립춘천박물관 소강당 및 야외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다문화가정 행복 찾기 행사에 많은 참여와 도움을 바란다.

- ○ 일시 : 9월 12일(토) 11:00~19:00 ※ 우천시에도 진행
- ○ 장소 : 국립춘천박물관 행사장
- ○ 주최 : 신나는나눔장터협의회, 극단Art3Theatre, 다문화연극축제운영위원회
- ○ 주관 : (사)일촌공동체강원본부, 극단Art3Theatre
- ○ 참여단체 :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 춘천지역자활센터, 참식품사업부,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YMCA, (사)일촌공동체강원본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춘천지부, 춘천좋은엄마모임 등
- ○ 문의 : 임현빈 010-2242-7918 (춘천YMCA 시민사회담당)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7>

노잉 (Knowing)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주제에 대한 영화는 아마 참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종말론을 둘러싼 많은 주장들이 대개 이단적이거나 정확한 예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종말에 관한 영화도 성경적인 주제로 온전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이렇다하게 소개할 만한 작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는 대개 외계인의 개입과 핵전쟁 후의 파괴적인 상황 등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으로 그려지며 때로는 황당한 영웅주의적 활약의 무대와 시간설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자 또한 이러한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하고 싶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에 관한 영화는 〈더 바이블〉 시리즈에서 다뤄졌을 것이고 실제 종말에 대한 상상이나 예언을 정면으로 다룬 헐리우드 영화는 작품성으로 그다지 좋은 것이 거의 없다. 몇 년 전에 나온 〈The Revelation〉이라는 7시간짜리 영화가 그나마 나은 편인데 즉석에서 감상하기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카톨릭적인 관점으로 제작되어 딱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던 중 편집인 한 분의 추천으로 올해 개봉된 〈노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엄격히 성경적 관점은 아니지만 영화적 작품성과 어느 정도 기독교적 메시지가 그런대로 잘 배합된 특이한 테크닉으로 상당히 인상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지주의(Gnosticism)적 색채가 다소 강한 내용이 많으므로 관람 시 주의를 요한다. 이 영화가 과연 기독교적 메시지를 보이느냐 아니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이기도하다. 재난 블록버스터에 속하는 이 영화는 〈크로우〉, 〈다크시티〉, 〈아이로봇〉 등 문명종말의 주제로 즐겨 만들어온 알렉스 프로야시의 감독 작품이며,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한국 교포여성과의 결혼으로 화제에 올랐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았다.

1959년 개교한 학교에서 기념으로 타임캡슐에 담아 묻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모습이 50년 뒤 개방되어 그중 한 여학생의 이상한 숫자배열로 채워진 문서를 MIT교수인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손에 쥐게 되는데 그 숫자의 의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난과 연관이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 결국 종말의 징조까지 밝히지만… 이상과 같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극전개의 긴장감과 영화 후반부에 펼쳐지는 사건에 절묘한 기술과 장엄하고 환상적인 영상미를 통해 종말에 대한 채념과 희망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그다지 종말에 관한 강박적 기분을 주지 않으면서 스필버그적 비쥬얼을 비롯한 여러 요소의 교묘하고 능숙한 배합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작품이다. 〈상영시간 121분〉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1.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나라의 큰 별이 지다.

지난달 13일 폐렴증상으로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85세, 후광(後廣))이 18일 오후 1시43분 폐렴으로 서거했다.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3년 목포에서 6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7·8·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IMF체제를 극복하고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북한조문단의 방문은 악화된 남북관계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어, 남북긴장완화와 경제협력에 큰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화와 인권, 통일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자.

2. 절반의 성공, 우주항공시대를 향한 나로호의 꿈.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비록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선진국들의 첫 발사 성공률이 27%에 불과할 만큼 나로호 발사는 절반의 성공이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9개월 뒤인 내년 5월 나로호의 두 번째 시험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시대를 열어가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애도



②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



③ 남과북의 만남



④ 한국 최초의 우주선 나로호



⑤ 나로호 발사



⑥ 나로호 정비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와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8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명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암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당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항교회	춘천광염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우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제시뉴욕	천일현수막	
춘천홀리클럽	행복제과장기오왕기관		
강선희	강덕자	강진룩	강태랑
고순덕	고순자	김관수	김기태
김대숙	김리현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봉재	김선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춘찬	김추환
김진삼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웅	마호속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현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천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의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정	유병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자	윤태호
윤홍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민	이명순	이무식	이병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길	이수황
이순자	이영진	이은수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지경화	차경자	최계화	최병숙
최상호	최영순	최윤용	최예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탁광희
한성이	한순수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병진
황은주	황정섭		







관점의 차이

박 찬 목 목사
(새순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출가한 딸의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식사를 해먹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아껴주는 사위를 보며 대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식사를 해먹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들이 측은하게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느낌과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견스럽게 보이던 사위, 측은하게 보이는 아들, 기특한 딸, 괘씸한 며느리…"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집안일 하는 건 기특하고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건 못 참는 것입니다.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밑천이고 며느리가 딸 낳으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한 것입니다. 딸네 시어머니 오실 땐 어른이 주책이 없는 것이고 자신이 아들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사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같은 상황일지라도 생각과 느낌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있는 자리 즉, 입장을 바꾸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남은 것,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문제보다 해결, 방해물보다 목표물, 미움보다는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요셉은 보복이나 앙갚음을 두려워하는 이복형제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창세기 50:20)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달의 말씀 :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3)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1단계
일시: 8. 24 ~ 9. 4 (월 화 목 금 8일)
오전반: 9:30~11:00, 저녁반: 6:30~10:00(20명)
모집인원: 각 반별 선착순 20명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9. 19(토) 오후6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문의: 033)244-5400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clov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로마서 개강세미나 : 8. 31(월) ~ 9. 3(목)
2) 전국총대표단 이취임식 : 9. 5(토)
3) GCTC 30기 1차 시험 : 9. 26(토)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3)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일시: 8. 22 ~ 9. 20 헌금: 2,500원
문의: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간사 사역의의
일시: 9. 9(수) 장소: 홍천 밀알펜션
2) 제자학교
일시: 9. 14(월) 개강 장소: IVF 춘천회관
3) 캠퍼스개강
일시: 9월 첫째주 캠퍼스모임 개강
문의: 252-5200

◆ JDM
1) 개강예배
일시: 9. 1(화)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2) TTS 개강
일시: 9. 4(금) 장소: 춘천지구회관
3) 화요전체채플 (대상: 누구나)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문의: 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정기 비전기도회
일시: 9. 8(화) 저녁7시 장소: 에덴교회 춘천CBS영대용웰딩 2층
2) GBT 소풍
일시: 9. 17(목) ~ 18(금) 장소: 미정
3) GBT 선교학교(지선학) 개강
일시: 9. 21 ~ 11. 23 매주 월요일 저녁7:30분
장소: 예덕교회 강사: GBT 선교사 및 간사
문의: 이선희 간사 010-9244-9094, sunny9832@gmail.com
GBT춘천지부 033)3927, chunchoon@v2025.or.kr / www.gbt.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청년리더십 세미나 (주제 : 글로벌시대 청년 리더십)
일시: 9. 5(토) 오후6시 장소: 주항장로교회
강사: 최바울 선교사(인터콥대표)
대상: 춘천지역교회 모든 청년들과 목회자 및 성도들
2) 아들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월드미션
※ 이번 달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일시: 9. 7(월) 오후7시 장소: 춘천광영교회(예맥골)
3) 세대별 비전스쿨(선교훈련 프로그램)
〈일반비전스쿨〉 기간: 9. 15(화) 오후7시 총12회 주1회, (1박2일 캠프 필참-3회) 회비: 22만원
〈어린이비전스쿨〉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훈련기간: 9. 19부터 7주간 훈련비: 15만원
지부문의: 033)262-1040

◆ 새벽4개 위성선교단 토요위십댄스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9:30분~11:00, 오후반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찌장인 · 주부 · 청년 · 사위지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무석초교옆) 문의: 263-6022, 017-374-241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추시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앞 1.5단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문의: 019-9138-4452, 251-4452 남부제일교회 송향순장로

◆ 마리클 아카데미
• 지휘 · 성악발성 · 피아노반주과정 · 문화선교과정 모집
대상: 목회자 · 사모 · 지휘자 · 반주자 · 찬양대원 · 일반성도
장소: 효신푸른하교 (KBS강원총국신사옥 맞은편, 온의동)
문의: 019-763-8866, 다음카페(마리클하모니) www.hyoshin.or.kr
• 교회성가대 클리닉(찬양발성 · 지휘 · 반주) 방문해 도와드립니다.

◆ English Worship 영어예배
일시: 매주 주일 오후2: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겟세마네성전
문의: 최은순 선교사 010-7123-8265

◆ CCM동아리회원모집
분야: 드럼 · 키보드 · 일렉기타 · 베이스기타 · 보컬
대상: 나이제한 및 직업제한 없음(단, 기독교세례교인이어야 함)
모임: 주 1회, 장소: 춘천시청소년수련관(문의: 244-1388)
연회비: 동아리모집 완료 후 상담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E-Club(Exciting Club)' 모집
대상: 어린이들(주제별로 구성되는 어린이 체험단)
내용: 자연친화적이고 재미있는 활동들 통한 환경가꾸기
모집기간: 9월 5일까지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6개월간의 체험비: 300,000원(입단비 10,000원별도)
문의: 춘천시청소년수련관 244-1388

◆ 2009하반년도 2학기 춘천리더십훈련학교
일시: 9. 24 ~ 11. 5 매주 목요일 9:30~16:00 / 11. 7(토) 소풍
모집인원: 신입생 50명 이상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교육내용: 그리스도인의 소명, 전도 · 육성 · 파송 · 훈련, 리더십의 개발 전략 등
강사: CCC 간사 - 김경민 간사(교장), 오진탁 목사, 원준희 간사 등
협력 - 원종국 감독, 신성균 목사, 조용호법제관, 유영길 교수
문의: 원준희 간사 016-345-5242

◆ 9월 성시화 연합통성기도회(CCPN)
일시: 9. 4(금) 오후1시, 유스아트홀(중원로 유영호치과3층)
주관: 성시화운동본부 주제: 교회연합과 성시화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 급 반 : 20명
□ 중 급 반 : 15명 (새찬송가 645곡 찬양/반주 완성)
※ 기타 중창단 모집(남 4명, 여 6명)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 장 소 : 안디옥교회 구영전 남춘천역 옆
□ 운 영 : 3개월 코스 (St/Ar)
6만원(월 2만원 ×3개월)
헌금/후원금으로 실경비 조달
□ 선 교 : 일반 시민 무료
□ 개 강 : 2009. 10. 6(화)
□ 접 수 처 : 목림악기사 (☎252-5041)
□ 문 의 : 010-6654-8280

통기타 대중시대 쉽게 배웁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 방문 요양센터(기관)
센터장/남부제일감리교회 송 향 순 장로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과 65세 미만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원하시는 분
◆ 서비스 : - 등급판정 안내
- 요양사(1급)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세수 · 목욕 · 배변처리 · 식사 · 세탁 · 청소 · 산책 · 병원진료 동행
☎ 상담문의 033)251-4452, 019-9138-4452 (남부로터리 대원당 옆)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8월 7일(금)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오의석 목사(남춘천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롬8:5~11)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좇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의지를 죽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며 "육신의 일,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분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춘천 성시화와 춘천 기독교기관들과 지역교회들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시신문 편집위원회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 최영조목사)는 8월 4일(화) 오후2시 성시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128호 평가회 및 129호(9월) 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창시포 제25차 포럼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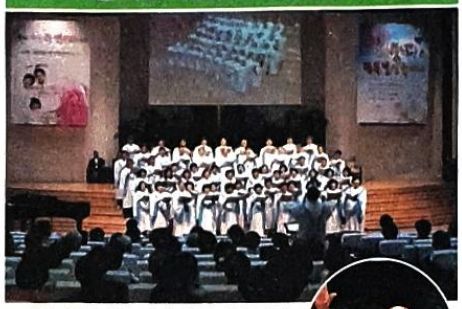
창조도시 시민포럼(상임대표 박의범) 제25차 포럼이 8월 22일(토) 오전7시30분 구봉산 산토리니에서 진행됐다. 이날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은 포럼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강원도 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월드비전 최인혁 친선대사 '희망 콘서트'



월드비전 강원지부(관장 박제호)는 8월 23일(주일) 오후2시와 오후7시 신북장로교회(담임목사 조덕준)와 옥산포침례교회(담임목사 김기만)에서 2회에 걸쳐 최인혁 집사 '희망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가난과 빈곤의 삶에 힘겨워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물질적 후원과 영적 후원자로 각 교회성도들이 결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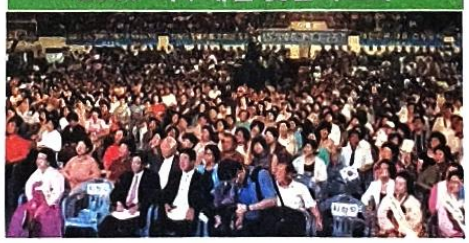
광복절 64주년 연합예배





광복 64주년을 맞아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회장 지용찬목사)는 8월 16일(주일)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광복절연합예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교계지도자들과 목회자, 성도들은 애국선열의 희생정신과 신앙의 열정을 본받고 국가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진호 감독(서울도봉교회 원로목사)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5~17)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8.15광복절을 맞아 해방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되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다"고 당부하였다.

2009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대식목사)가 주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2009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8월 30일(주일) 오후3시, 원주치악체육관에서 도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관계자와 성도들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주환 도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과 장효근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춘천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동계올림픽 유치기원에 힘을 보탰다. 횃불기도회 1부에서는 초대가수 송대관씨가 축하 무대와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예배와 장경동 목사의 '변화와 능력'이란 주제의 설교가 진행됐다. 또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아동개발센터에 각각 위탁가정아동 후원금과 강원도민사랑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제6차 JDM 세계선교대회



예수제자운동(JDM · 대표 윤데호 목사)이 개최한 '제6차 JDM 세계선교대회'가 지난 8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대전 한남대 성지관에서 뜨겁게 열렸다. 1989년 제1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선교대회는 올해 '열방, 캠퍼스, 복음'이라는 주제로 국내를 포함한 세계 28개국 대학 청년 및 직장인들이 1,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해외 200여명의 캠퍼스 선교 리더들이 참가하고, 대회를 섬기기 위해 22개 국가에서 약 7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윤태호 목사, 루이스 부시 세계빈혁선교운동 국제대표, 한철호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윤종대 JDM미션대표, 최영수 직장사역훈련센터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해 대회기간 동안 다양한 특강을 가졌다.

■ 양승훈 박사초청 특별세미나 개최





지난 8월 14일 춘천휴리클럽(회장 이학규장로)은 캐나다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양승훈 박사를 초청, 50명 회원이 중앙장로교회(담임 사공정목사)에 모여서 8.15광복절기념 "우리(민족)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승훈 박사는 강연을 통해 우리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강인한 민족, 신바람 민족, 창의성 민족, 종교적 민족으로서 상상치도 못했던 88올림픽 신화창조, 2002월드컵개최와 4강 진출, IT기술개발, 조선, 자동차, 통신기술, 반도체 기술개발로 세계 10대수출국으로 성장시켰다. 끊임없는 외침(外侵)과 가난과 고통에 대한 감내가 생활화된 한국인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하며 진실 근면 친화적 생활로 잘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유태인들까지도 당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라고 소개했다. 오랜 국제사회에서 느낀 점을 소개함으로 큰 감동과 긍지와 자부심을 뿌듯하게 안겨주었다.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약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기원)은 8월 21일(금) 오전9시30분 본 기관에서 강원해바라기아동센터(소장 이향아)와 업무협약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적극적 연계 및 지원, 양 기관 간 관련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교육훈련 활동 및 인적교류 활동 등의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향상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09 춘천성시화리그 8월 경기결과 】

2009. 8. 25 현재

구분	강촌	금산	동부	삼천동	석사	성문	소양	소양제일	시온	온누리	제일	중앙	지내리	평화	효자	전체득점	승	무	패	득	실	차	점
강촌													35		51	3	1	0	1	5	6	-1	3
금산		07									02		23			3	0	0	3	2	12	-10	0
동부	70								34							2	1	0	1	10	4	6	3
삼천동								22		22						2	0	2	0	4	4	0	2
석사							20		03							3	1	0	2	5	-1	3	1
성문								10								1	1	0	0	1	0	1	3
소양							31	32								2	2	0	0	6	3	3	6
소양제일				02			13	12								2	0	0	2	2	7	-5	0
시온							23	21		23						3	1	1	1	7	7	0	4
온누리				22		01			33							2	0	0	2	5	6	-1	2
제일		43		30												2	2	0	0	7	1	6	6
중앙	20		22										23			3	1	2	0	4	4	2	5
지내리	53														32	3	0	0	3	0	8	3	6
평화		32									22		44			3	1	2	0	9	6	1	5
효자	15											23		44		3	0	1	2	7	12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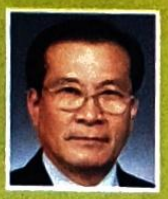
【 '09년 춘천미션리그 일정 】

일시		9월			
		07	14	21	28
A	20	지내리 제일	중앙 온누리	평화 : 소양	제일 : 시온
	21	평화 온누리	지내리 소양제일	제일 소양제일	평화 : 석사
	22	동부 : 시온	효자 : 제일	지내리 시온	중앙 : 소양
B	20	삼천동 : 소양	강촌 : 시온	효자 온누리	지내리 성문
	21	강촌 소양제일	금산 : 소양	강촌 : 성문	효자 소양제일
	22	석사 : 성문	동부 삼천동	금산 : 석사	강촌 삼천동

※ 춘천미션리그 교회대항 축구대회 안내

- 기 간: 2009. 8월 ~12월 (18주)
- 일 시: 매주 월요일 20:00~24:00
- 장 소: 공지천 축구장(2면)
- 방 법: 15개 교회 풀리그(105경기)
- 주 최: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2009학년도 3학기 9월 1일(화) 개강



춘천캠퍼스 이 사 장 박 상 호 목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M.Div.)
총신대학교 RTS목회신학박사
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현, 월드비전 춘천시지부장
현,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학장 윤 용 진 목사(Ph.D.)

강원대학교 법학과(LL.B.)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총신대학교 대학원(Th.M.,Ph.D.)
전, 텍사스미국남침례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현, 야웨신학교 학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영적지도자 양성 및 훈련

신입생 모집 야웨(יהוה)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2009년도 야웨(יהוה)신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교육내용	캠퍼스	제출서류	수업일	비 고
상담연구원 (M.A.equ.)	기독상담사 양성교육	서울, 춘천	· 입학원서 (다운로드) · 최종졸업증명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알콜 시진	주 1 회(월요일)	실제사역중심
교회음악부 (B.A.equ.)	피아노 바이올린	서울		주 1 회 (조정가능)	실기 중심
성경학부 (B.Th.equ.)	성경연구 & 신학준비과정	서울, 춘천, 청주		주 2 회 (청주 주3회)	· 시간과 거리상 출석수업이 어려운 국내·해외지역 학생은 통영상강의로도 이수 가능함
신학연구원 (M.Div.equ.)	목사(선교사) 양성교육	서울, 춘천, 청주		주 2 회 (청주 주3회)	
성경대학원 (Th.M.equ.)	본문주해설교 &성경교수법	서울, 춘천		서울 월2일 춘천 주1회	








신학과 영성
학업과 지성
생활과 정서
21세기 리더십
신학교의 모든것

한국교계의 지도자 양성
세계의 목회현장에 원하는
영적전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야웨 신학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뛰어난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야웨 신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야웨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www.yhwhschool.org
yhwhschool@hanmail.net

문의 전화 : 02 – 3281 – 9256 / 070 – 8236 – 9256 / 033-253-7942

-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번지 춘천제일장로교회
  033) 253-7942 / 010-8901-0059
- 서울캠퍼스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번지 이앤씨 벤처드림타워 2차 1301호
  02) 3281-9256 / 011-340-5205
- 청주캠퍼스 :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20-1번지 코스모스선교교회
  043) 223-0975 / 010-5588-9848
- 해외캠퍼스 : 제 1 캠퍼스(S국) / 제 2 캠퍼스(G국) – 성경학부, 신학연구원, 성경대학원
  070) 8236-9256 / 019-375-9256

야웨신학교 춘천캠퍼스
YHWH Theological Seminary Chuncheon Campus

교회건축(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구조물 보수, 보강 전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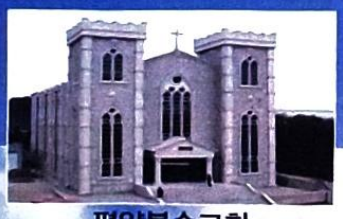


대표이사 강상용장로
(서울북노회 / 상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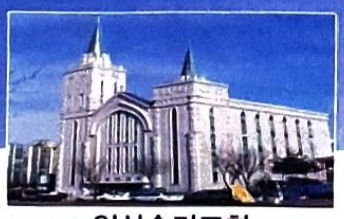


대표이사 이진배장로
(강원노회 / 성광교회)

교회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엘리트와 상담하십시오.



평양봉수교회



일산승리교회



오창대교회



마천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2-2 (덕원빌딩 2층) T. 02_529_1893~6 F. 02_529_1897
E-mail. elitecd@paran.com homepage. hppt://www.elite-cd.com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60-8 청산빌딩 3층 T. 033_254_5070 F. 033_254_5170
E-mail. ejb5222@hanmail.net H.P. 011_9795_5570

(株)엘리트 개발
(株)엘리트 공영
(株)엘리트기발공영